

이것이 적극행정,
달라진 대한민국입니다

2025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제 40호)



충청도 구수한 사투리를 반영하여
'e(인터넷을 이용한) 당신을(you) 위한 날씨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의미합니다.

2025
대전지방기상청 웹진 여름호 (제 40호)

목차



기상청장 기고

- 05 / 해양기상정보 활용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 07 / 기후위기 속 폭염 열대야를 알면 백전불태
- 09 / 우리의 행동으로 지키는,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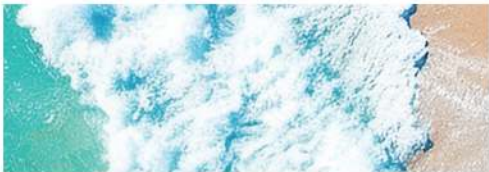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 소식

- 11 / 3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22 / 4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4 / 5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 37 /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 Pixabay



서비스

- 39 /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 40 /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 (구성동, 대전지방기상청)
전화 042-363-3599

발행일자 2025년 8월 29일
발행처 대전지방기상청
편집장 박경희 대전지방기상청장
편집/교열 백은희(기획운영과), 이해정(기획운영과), 서희진(예보과), 정민음(관측과), 김지현(기후서비스과)
편집디자인 김진영(관측과)
웹진지자단 김기창(기후서비스과), 김연직(관측과), 김정수(기후서비스과), 남민우(관측과), 박성진(관측과)
박진영(예보과), 백승우(예보과), 백은희(기획운영과), 윤자인(기후서비스과), 이정섭(관측과)
이혜정(기획운영과), 임나영(예보과), 임유진(기후서비스과), 최경연(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에서 발행한 'e-날씨'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이미지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il.or.kr

해양기상정보 활용해 여름철 물놀이 안전을

해변에서도 급격한
기상변화가 발생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고 이른 더위가 이어지면서, 일부 해수욕장이 예년보다 이르게 6월 중순 조기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더위를 피하고자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분위기가 벌써부터 느껴지고 있다.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진 푸른 바다로 뛰어드는 상상만으로도 시원한 기분이 드는데, 사실 바다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무쌍하고 여러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겉으로는 잔잔해 보이는 해변에서도 이안류(離岸流)나 돌풍과 천둥·번개 등 급격한 기상변화가 발생해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안류는 수영객을 해안에서 순식간에 먼바다로 끌고 가는 강한 흐름으로, 2017년 8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안류가 발생해 70여 명이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고, 인천에서도 13살 중학생이 이안류로 해안에서 800m나 휩쓸려 간 일이 있었다.

그렇다면 여름철에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이안류 예측 서비스'와 '해수욕장 날씨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이안류 예측 서비스'는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흐르는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른 해류인 이안류를 예측하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날씨누리과 해양기상정보포털을 통해 충남의 대천 해수욕장과 전남의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부산의 해운대 해수욕장, 제주의 중문색달 해수욕장, 강원도의 경포, 안목, 강문, 낙산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하루 한 번 아침 6시에 1시간 간격의 3일간(72시간) 이안류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이안류 예측 정보는 4단계로, 이안류 발생 가능성이 낮은 관심 단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주의 단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계 단계,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 단계로 발표되고 있다.

이안류 예측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과 함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이안류에 휩쓸렸을 때의 행동요령을 숙지해 둘 필요도 있다. 갑작스럽게 이안류에 휩쓸리게 되면 당황해서 빨리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해변을 향해 헤엄치기 쉽지만, 그러다 자칫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안류를 거슬러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않고 흐름에 몸을 맡겨 체력을 보존하며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다. 튜브를 타고 있다면 튜브를 꼭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고, 수영이 가능하다면 이안류 진행 방향의 45도 방향으로 헤엄쳐서 이안류의 흐름에서 벗어난 후 해안으로 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세한 행동요령은 기상청 누리집 참고)

다음으로 '해수욕장 날씨 서비스'는 전국 주요 해수욕장의 기상 관측 및 예측 정보와 바다 상태, 천문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30분마다 갱신되는 이 서비스는 해수욕장 위치의 기온과 풍향·풍속, 습도, 강수량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1시간 단위 6시간까지의 초단기 예보와 3시간 단위 5일까지의 단기 예보, 해수욕장이 포함된 도시의 중기 예보를 제공한다. 또한 해수욕장과 가장 가까운 부이와 파고부이에서 각각 관측된 수온과 파고값이 30분 간격으로 반영돼, 서비스 이용자는 물놀이 적합성을 바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 제공의 오늘·내일의 일출·일몰 시각과 국립해양조사원이 제공하는 만조·간조 시각도 함께 표출돼, 물놀이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든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의 테마날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름 바다는 분명히 즐겁고 소중한 휴식처이지만, 그와 동시에 철저한 준비와 안전의식이 동반되어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상청의 해양기상정보 서비스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정보의 최전선에서 24시간 쉼 없이 노력하고 있다.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자주 확인하고 위험기상 발생 시 행동요령과 안전수칙도 함께 숙지하여 여름 바다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폭염과 열대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폭염과 열대야,
매년 부각되는 기후위기

여름의 한복판에 서 있는 지금,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표정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기세의 무더위에 지칠 대로 지친 모습이다. 머리 위로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을 받으며, 남은 올여름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지 생각에 잠겨 본다.

직접 피부로 느껴지는 만큼 폭염과 열대야라는 말이 점점 더 힘겹게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는 매년 부각되는 기후위기 때문일 것이다. 근래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 보면 기후위기관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기후위기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그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인류와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현상을 말한다. 기후변화에 의해 평균기온이 높아지고 있으며, 작년 충남권의 여름철 평균기온은 평년 대비 1.7도 높은 25.8도까지 오르며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이렇게 기온이 상승하면서, 밤에도 더위 때문에 잠 못 드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다.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충남권에는 여름철 열대야가 평균적으로 매년 15.8일 발생했고, 가장 최근인 작년엔 열대야가 무려 21.7일 나타나 1위를 기록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피해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집계한 전국의 온열질환자 발생 수는 지난해 3704명으로 2022년 1564명의 2배 이상 증가했다.

폭염과 열대야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다.

바로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白戰不殆)'이다. 이 오래되고 익숙한 성어는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다.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할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기상청에서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표해 폭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폭염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구분해 보건(일반인·산업근로자), 보건(취약계층), 농업, 축산업, 수산업, 기타 등 6개 분야로 제공하는 폭염영향예보를 2019년부터 정식 서비스하고 있다.

폭염영향예보는 단순한 정보나 조심하라는 경고, 그 이상이다. 언제,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알려주는 실용적인 기상정보이다.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알리미 앱을 통해 제공되며, 기상청에서는 기존에 2일간의 정보를 제공하던 것에서 올 5월 15일부터 하루 더 확대해 모레 기준의 폭염 영향 예보도 발표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대응을 돕고 있다. 또한, 폭염영향예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노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해 단계별 행동요령을 스마트 마을 방송 시스템을 통해 음성으로 제공하는 등 다각화된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폭염과 열대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면 피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상청은 정확한 날씨 정보뿐만 아니라, 폭염과 열대야에 취약한 분들에게 사전 정보와 대응요령을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함께라면 여름철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더불어 외출 전 안전디딤돌 앱이나 국민재난안전포털 누리집에서 주변의 무더위 쉼터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 속에서도 미리 대비하여 모두가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6월 21일부터는 기존의 영향예보 직접전달 서비스를 확대해, 폭염 영향 예보 보건 분야에 주의 단계 이상이 예상되면 12시경 서비스 신청자에게 앱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폭염 예상 시 등록해 놓은 자녀 및 보호자, 지인의 연락처로 관심 지역에 대한 폭염 등 위험기상정보와 대응요령을 보내고, 안부 전화를 통해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위험기상을 전달하도록 돕는 서비스로, 폭염 피해 예방과 함께 가족과 이웃 간의 정도 돈독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의 행동으로 지키는,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더위 못지않게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
바로 태풍

예전 같으면 뉴스 헤드라인이 될 더위도 이제는 익숙하게 지나치는 여름이 되었다. 그만큼 여름철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은 여름, 더위 못지않게 주의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태풍이다.

기상청에서 집계한 태풍 발생 통계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 매년 평균 25.1개의 태풍이 발생했고, 이 중 평균 3.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8월과 9월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가장 많은 시기로, 평균적으로 각각 1.2개, 0.8개의 태풍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시기에는 해수면 온도가 높고, 북태평양 고기압 경계부의 위치에 따라 태풍이 한반도 방향으로 북상할 수 있는 기압배치가 나타난다.

최근의 사례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2년 9월, 한반도를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기억할 것이다. 당시 힌남노는 한반도에 상륙해 경북 포항과 울산, 부산 등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일으켰다. 건물 침수와 강풍 피해가 160여 건에 달했으며, 28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컸다. 경제적으로는 약 5,752억 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보다 앞선 2020년 9월에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 두 개의 매우 강한 태풍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연달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마이삭에 의한 강풍과 폭우로 정전, 산사태, 도로 및 주택 파손 등이 발생했고, 뒤이어 북상한 하이선에 7만여 가구가 정전되고 도로와 주택, 공공시설이 대거 파손됐다. 그해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46명이 사망 및 실종됐고, 약 1조 3,000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이처럼 강력한 태풍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상청은 위성과 레이다, 수치모델 등으로 태풍이 발생했을 때부터 약화하거나 변질되기까지의 전 단계를 추적하고 있다. 태풍의 중심 위치와 진로, 강도 등을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될 때는 기상 특보와 예비 특보를 통해 예상 강수량과 강풍 강도, 시기 등을 알리고 있다.

관련 정보는 기상청 날씨누리과 날씨알리미 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디딤돌 앱, 재난문자, 방송과 언론 등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최근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개, 2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지만,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기후 및 대기 패턴 변화, 태풍 진로를 차단하는 기압 배치 등 기상학적 요인으로 태풍이 평년보다 적게 왔기 때문이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지난 태풍 피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전 점검과 대응 체계의 강화, 지자체 및 공공 기관의 신속한 대응 역량 향상이 피해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태풍 피해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태풍은 사전 대비만 잘해도 대부분을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태풍에 맞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배수구나 하수구를 미리 정비하고, 창문은 테이프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지붕, 간판 등 옥외 시설물은 고정하거나 사전에 정리하고, 정전과 단수에 대비해 비상용품도 준비해야 한다. 또한, 하천 부근, 저지대, 지하 주차장 등 침수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않아야 하며, 차량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되 폭우가 시작된 이후 무리하게 이동하는 것은 위험하다. 차량보다 인명 보호가 우선인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특보나 대피 지시가 내려졌을 때는 즉시 대피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어떤 태풍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지만, 피해는 대비한 만큼 줄일 수 있다.
기상청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발 앞서 움직이며 노력하고 있으며, 여기에 개개인의 행동이 이어진다면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가족과 함께 태풍 대응 방법을 이야기하고 집의 시설을 점검해 보는 것도 안전한 일상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Pixabay

11-21

사진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6월 대전지방기상청 이모저모

2025.6.1.~7.12.

기상·기후과학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6월 전반에 걸쳐 학교 교육 현장에 기후변화 과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기후변화 과학 강의와 북극곰 살리기 보드게임 등의 체험 활동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 기후위기 대응 역량 향상과 학교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였다. 또한 7월 12일 KBO 올스타전 홍보 부스에서는 바다 유리 핸드톡 업사이클링, 이끼 액자 만들기 등 다각적 이해 확산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에 기여하였다.



2025.6.2.~6.17.

유성구와 함께하는 2025년 「우리마을 스탬프투어」 운영



DROM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관계기관과의 협력·소통을 통하여 VR 기술을 활용한 기후변화 과학 교육 프로그램 ‘우리마을 스탬프 투어’를 운영 하였다. 유성구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번 프로그램에 6학년 118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학생의 96%가 ‘만족’하였다고 응답했다. 이번 교육은 새로운 융합 콘텐츠 활용으로 기상기후 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5.6.2.

2025년 현충원 참배 및 묘역 정비 사회 공헌활동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6월 2일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였다. 사회 공헌활동 참여를 희망한 12명의 직원들이 현충탑 참배 후, 배정받은 108묘역으로 이동해 약 500개의 묘역을 정성스레 닦으며 정비하였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시간이 되었다.





2025.6.4.

2025년 찾아오는 문화교실 1차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소속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다양한 취미생활 지원을 위해 매년 찾아오는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차로 고체형 방향제인 왁스 타블렛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15명의 직원이 강사님의 설명을 따라 왁스를 녹여 향이 나는 오일 등을 넣고, 각자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굳어가는 왁스에 풀잎과 깃털 등을 꽂아 예쁘게 장식하였다.

하반기에는 티라미슈 케이크 만들기가 운영될 예정이다.





2025.6.5.

관계 기관 호우 긴급재난문자 대응 업무 지원 기상교육

대전지방기상청은 세종시 소방본부의 방재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호우 긴급재난문자(CBS)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방재기상 플랫폼 활용 방법과 기상현상의 이해 및 레이더 영상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을 통해 관계 기관 방재담당자들의 기상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방재 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6.11.

「2025년 금강유역 홍수 안전 실무협의회」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6월 11일(수) 금강유역 물관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통해 홍수 대응 강화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5년 금강유역 홍수 안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충남권에 시범운영 예정인 호우 긴급재난문자에 대해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홍수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충남권 기상재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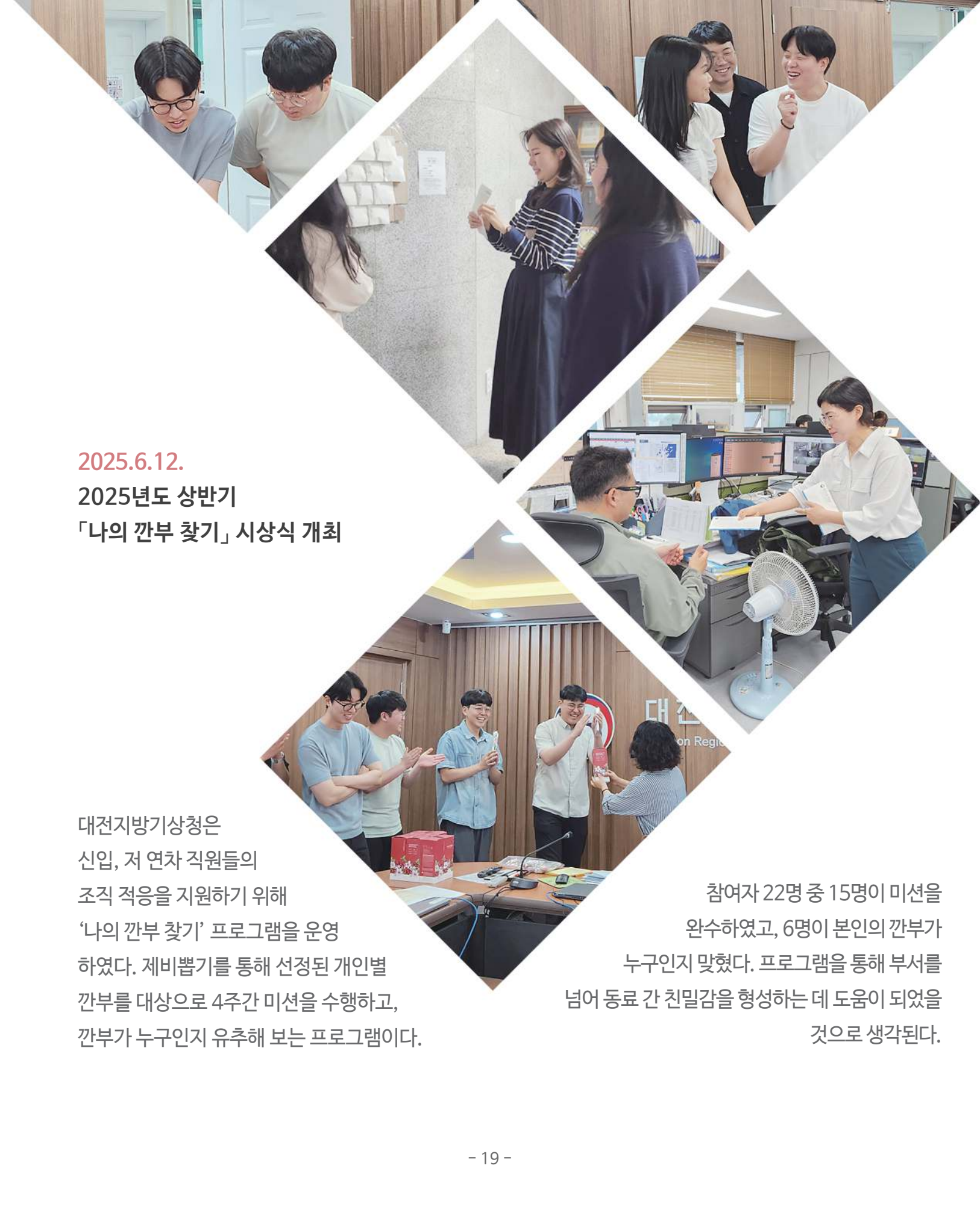


2025.6.12.

2025년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1차 시상

대전지방기상청은 소속 직원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만보 걷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세 달 동안 개인별로 만보를 걷고 달성 기록에 따른 시상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세 달 동안 1만보 달성 횟수가 가장 많은 ‘만보왕’, BMI 지수가 가장 많이 줄은 ‘감량왕’, 동료와 걷기를 가장 많이 실시한 ‘소통왕’을 각 1인씩 선정해 시상을 하고 있다. 1차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의 만보왕, 감량왕, 소통왕은 유○○, 한○○, 이○○ 직원이다.



2025.6.12.

2025년도 상반기

「나의 간부 찾기」 시상식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신입, 저 연차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나의 간부 찾기’ 프로그램을 운영
하였다. 제비뽑기를 통해 선정된 개인별
간부를 대상으로 4주간 미션을 수행하고,
간부가 누구인지 유추해 보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22명 중 15명이 미션을
완수하였고, 6명이 본인의 간부가
누구인지 맞혔다. 프로그램을 통해 부서를
넘어 동료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025.6.18.

국민정책기자단 「관측장소 파노라마 및 3D 입체영상」 제작 과정 소개

대전지방기상청은 6월 18일 천안 ASOS에서 국민정책기자단을 초청해 ‘관측 장소 파노라마 및 3D 입체 영상’을 소개하고 드론 촬영 과정을 시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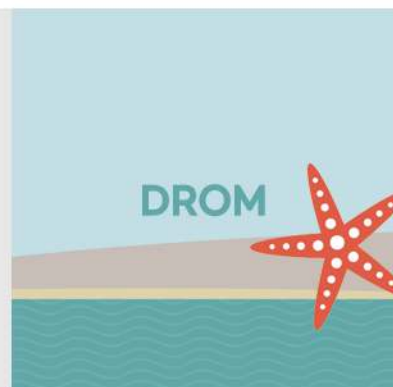
이 서비스는 드론으로 촬영한 VR 영상과 3D 지형 지도를 통해 관측환경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정밀한 예·특보 판단과 재난 대응에 도움을 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향후에도 정책 콘텐츠를 활용한 국민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5.6.30.

2025년도 상반기 우수기상관측자 선정 및 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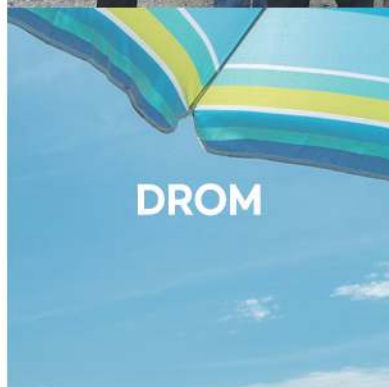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관측자의 사기 진작과 전문 입력, 일기상 통계표 검열 등 관측업무의 책임성 강화로 고품질 기상관측 자료 생산을 위해 상반기 우수 기상 관측자를 선정하였다. 평가대상은 '24년 12월부터 '25년 5월까지 관측업무를 수행한 관측과 부서원, 홍성기상대 관측 보조요원으로, 지상관측 전문 입력률과 일기상 통계표 정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대전지방기상청은 기상정보 생산의 근간이 되는 기상관측의 중요성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25.7.4~7.5.

「7·4 격렬비열도의 날」 선포 1주년 기념행사 서해기지 홍보부스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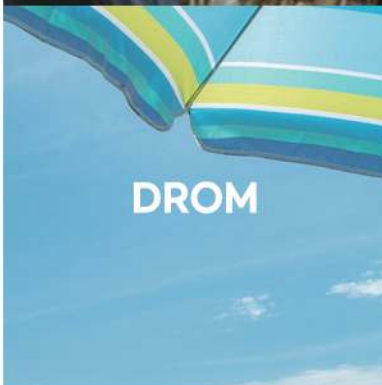


대전지방기상청은 태안군 ‘7·4 격렬비열도의 날’ 선포 1주년 기념행사에 참가하여 기상관측 차량을 활용한 서해기지 드론 촬영 영상 재생, 관측자료를 표출하고 서해기지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7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1,700여 명이 행사에 방문하였고 홍보부스에서 기상청 관련 리플릿 7종 배부하고 관측 차량을 통한 홍보로 서해기지의 지리적·기상학적 중요성을 알리면서 대국민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2025.7.4~7.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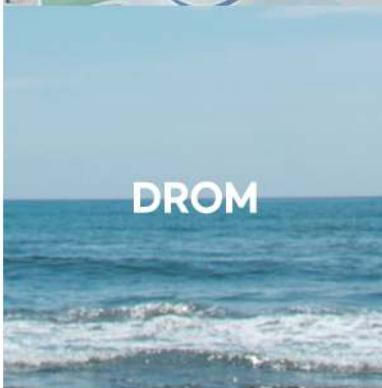
온열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한 폭염 영향예보 활용 교육 및 캠페인



대전지방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해 대전도시공사와 협업하여 영구 임대아파트단지 입주주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물품(쿨토시, 부채, 생수 등)을 배부하고 폭염 대응요령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등 마을에서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와 대전광역시 노인 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폭염 피해 예방 물품 배부하고, 폭염 영향예보 활용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기대해 본다.

2025.7.9.

대전지방기상청 폭염 피해 예방 「해피해피 캠페인」 실시



대전지방기상청은 폭염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폭염 발생 시 대응 요령 확산을 위해 2025년 폭염 피해 예방 ‘해피해피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 동구 일원에서 온열질환 취약계층 60여 가구를 대상으로 밥상공동체 복지 재단인 대전연탄은행과 함께, 생수 나눔 활동과 폭염 시 행동 요령 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으로 기상청의 다양한 기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 여름철 기상재해로부터 취약계층의 피해가 없길 기대한다.



2025.7.10.

「제13회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

대전지방기상청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고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충청남도과 공동 주최한 ‘제13회 충청남도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총 28개 팀이 접수한 가운데 최종 6팀을 선정하였다.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조도 기반 정밀 농업을 위한 공공데이터 융합 센서 네트워크’는 대상과 함께 특별상을 수상하였고, 충청남도를 대표하여 통합 본선에 참가할 예정이다.



2025.7.10.

지역 기상업무 및 국립충남기상과학관 홍보를 위한 tbn충남교통방송 출연

대전지방기상청은 내포신도시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옆에 7월 8일 개국한 tbn충남교통방송에 출연하여 과학관 소개 및 운영정보 안내, 개국 축하를 전하였다. 또한, 지역민 기상정보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기상지식을 전달하는 방송을 하기로 하였고, 신속한 기상정보 전달을 위하여 대전(청)과 지속적으로 협력기로 하였다.



2025.7.16.~7.18.

2025년 여름철 위험기상 대응 기상관측차량 고층 특별관측

수도권 집중관측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충청남도 서천군 춘장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기상 관측차량을 활용해 총 9회의 고층 관측을 실시하였다.

특히, 16일 22시경 춘장대 AWS(자동기상관측장비)에서는 시간당 98mm의 강한 비가 관측되었으며, 이날 수행된 고층 관측을 통해 확보한 기상자료는 여름철 위험기상 발생 전후의 대기 구조를 이해하고, 예보관의 예·특보 판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7.23.

국립충남기상과학관 관람객 야외 편의시설 설치

대전지방기상청은 국립충남기상과학관 관람객 편의성과 휴식공간 확대를 위하여 좌식형 퍼걸러 4동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기존 휴게시설과 연계하여 더욱 편리하게 야외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대전(청)은 과학관 관람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25.7.24.

내파수도 연안부이 신규 설치 홍보를 위한 현장 방문

대전지방기상청은 내파수도 인근 해역의 기상서비스 강화를 위해 연안부이를 설치하고 6월 24일부터 대외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내파수도 신설 운영 홍보 및 연안부이 유실 등 사고 예방 안내를 하기 위해 7월 24일 충남 태안군 안면읍 승언 8리 마을회관을 방문하였다. 방포·꽃지 어촌계, 방포 수산영어 조합법인, 방포 선주연합회 등 6인이 참석하여 내파수도 연안부이 설치 추진 과정 및 신설 운영 소개, 자료 보는 법 안내 등을 통해 연안부이 운영 효율화에 기여하였다.



2025.7.25.

2025년 기후변화

취약계층 폭염대응 지원사업 물품 전달식

대전지방기상청은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응이 어려운 취약계층 100가구를 선정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기후·환경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폭염 대응 물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취약계층에 물품 지원과 함께 폭염 영향 예보 리플릿도 제공해 폭염 대응 행동요령에 대해 안내하여 시민 스스로 대응 역량을 높임으로써 취약계층이 지역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7.25.~8.7.

주니어닥터 연계 여름방학 기상·기후 체험교실

「여기 어때」 프로그램 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상·기후 체험 교실 「여기 어때」(여름방학엔 기상기후 체험교실 어때)를 운영하였다.

주니어닥터와 연계하여 진행한 이번 프로그램에 17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기상현상과 기후변화에 대해 탐구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기후변화 과학강사단 선생님들의 수상가옥 만들기 체험활동이 큰 호응을 얻었고,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86%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기상기후과학에 대한 흥미 유발 및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2025.7.30.

2025년 관·학 협력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기술교류세미나 개최

대전지방기상청은 지역 기상 관련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 양성 및 기상기후데이터 활용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관·학 협력 기상기후 데이터 활용 기술교류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전지방기상청에서는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분석 및 서비스를 소개하였고, 국립공주대학교에서는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연구기술을 소개하였다. 기술교류 세미나를 통해 관·학의 최신 기상기후 서비스 및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기상기후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5.8.1.

2025년도 폭염 대응 및 영향 분석을 위한 기상관측차량 특별관측



대전지방기상청은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과 영향 분석을 위해 기상관측 차량을 활용한 특별관측을 실시하였다. 이번 관측은 세종특별자치시 합강동 건설 현장에서 진행됐다. 건설 현장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이 강하고, 작업 특성상 노동자들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대표적인 폭염 취약지역으로 꼽힌다. 실제 건설 현장에서 수집된 관측자료를 인근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 얻은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향후 영향 예보의 기초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폭염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2025.8.5.~8.14.

국립충남기상과학관 기상분야 진로탐색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 「미래 기상학자 연구소」운영

대전지방기상청은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충남기상과학관에서 기상과학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 제공을 위하여 ‘미래 기상학자 연구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상분야에 대한 관심 및 진로 희망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기상과학 전문 대학인 공주대학교 교수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고 대학 현장에 방문하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상과학 분야에 대한 관심 제고와 함께 향후 진로 선택을 위한 사전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25.8.11.

천안 고용노동지청 합동 외국인 근로자 폭염 피해 예방 현장점검

대전지방기상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해 천안고용노동지청과 폭염 피해 예방 합동 현장점검을 진행하였다. 예산군 딸기농장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 물품(쿨 토시, 부채, 생수 등)을 배부하고, 다국어 폭염 영향예보 리플릿을 배부하여 폭염 대응요령 등에 대해 안내하였다. 이를 통해 위험기상정보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야외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를 기대해 본다.

관측기록으로 보는 대전지방기상청 극값 및 계절관측

6

2025
JUNE

6월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6.29. 대전 3위 28.7℃, 천안 3위 27.3℃, 세종 4위 27.5℃, 금산 5위 27.5℃

6.30. 서산 1위 26.9℃, 대전 2위 29.1℃, 금산 2위 27.9℃, 홍성 3위 27.6℃
세종 3위 27.8℃, 부여 3위 27.4℃, 보령 3위 26.8℃, 천안 5위 27.1℃

6월 중순 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6.19. 홍성 4위 31.7℃, 보령 5위 32.1℃

6월 하순 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6.30. 금산 4위 33.6℃, 세종 4위 32.8℃, 대전 5위 33.8℃

6월 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6.28. 서산 5위 23.2℃

6.29. 대전 3위 25.2℃, 세종 3위 24.5℃, 홍성 4위 24.5℃, 보령 4위 24.1℃
서산 4위 23.6℃

6.30. 서산 3위 24.3℃, 보령 5위 23.6℃

6월 중순 일최대순간풍속 최고 극값(순위) 경신

6.20. 천안 1위 14.5m/s, 보령 3위 17.3m/s, 부여 3위 11.5m/s
금산 4위 12.6m/s

6월 중순 1시간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6.20. 홍성 1위 21.3mm, 세종 1위 11.1mm, 부여 2위 30.7mm

6월 중순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6.20. 부여 3위 105.9mm, 보령 3위 93.8mm

7

2025
JULY

7월 일평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7.8. 금산 1위 30.3℃, 세종 2위 30.5℃, 대전 4위 31.4℃
 7.9. 홍성 3위 30.2℃, 금산 3위 29.9℃, 세종 3위 30.3℃, 서산 5위 30.2℃
 7.11. 보령 2위 30.7℃
 7.27. 세종 1위 30.5℃, 홍성 1위 30.3℃, 대전 2위 31.6℃

7월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7.8. 홍성 1위 36.7℃, 세종 3위 35.7℃, 서산 5위 36.5℃
 7.31. 보령 5위 36.6℃

7월 일최저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7.31. 서산 2위 26.5℃

7월 1시간최다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 7.17. 서산 1위 114.9mm, 홍성 1위 98.2mm, 세종 2위 52.6mm
 천안 4위 53.4mm

7월 일강수량 최고 극값(순위) 경신

- 7.17. 서산 1위 438.9mm, 홍성 1위 353.3mm, 천안 1위 301.1mm
 세종 2위 192.9mm, 부여 5위 179.8mm

8

2025
AUGUST

8월 일최고기온 최고 극값(순위) 경신

- 8.2. 보령 3위 36.3℃, 홍성 5위 36.3℃, 세종 5위 35.3℃

※ 홍성 : 예비관측일인 2015. 11. 03.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17. 11. 01.)

※ 세종 : 예비관측일인 2019. 04. 01.부터 통계된 자료(정규관측: 2020. 04. 01.)

동물계절

매미 초성

- 7.2. 작년대비 20일 늦음, 평년대비 7일 빠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기상청 전자민원

전자문서(PDF)로
무료 발급 받으세요!

<http://minwon.kma.go.kr>



인터넷 간편 신청, 발급

기상특보와 지진관측을 포함하여 모든 기상현상증명을
인터넷에서 무료 발급합니다.
(기상현상증명, 기상자료제공, 지진관측증명)

전자증명서(PDF) 다운로드

전자증명서(PDF)를 발급하며,
기존의 종이출력과 파일 다운로드 모두 가능합니다.



디지털원패스(정부통합ID) 로그인

다양한 정부사이트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 ID를 적용하였습니다.

플러그인 설치없는 웹 환경

플러그인 대체 방안을 마련하여
기존 Active X를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없는 민원 서식

증명서의 개인정보 표시 제한, 세로형 출력 등
민원 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알기쉬운 민원 신청방법

민원사무의 종류

기상청 전자민원 신청 순서

디지털원패스란, 다양한 서비스를
한번의 로그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통합ID입니다.

1. 기상현상증명

법원, 경찰서, 보험회사 등 기관 및 단체의 법적 근거서류, 공사연기원 등 증빙용

2. 기상자료제공

학술·연구, 보고서 및 일지 작성 등 기록 및 분석용



대전지방기상청관할 지상관측지점 현황 (2025. 8.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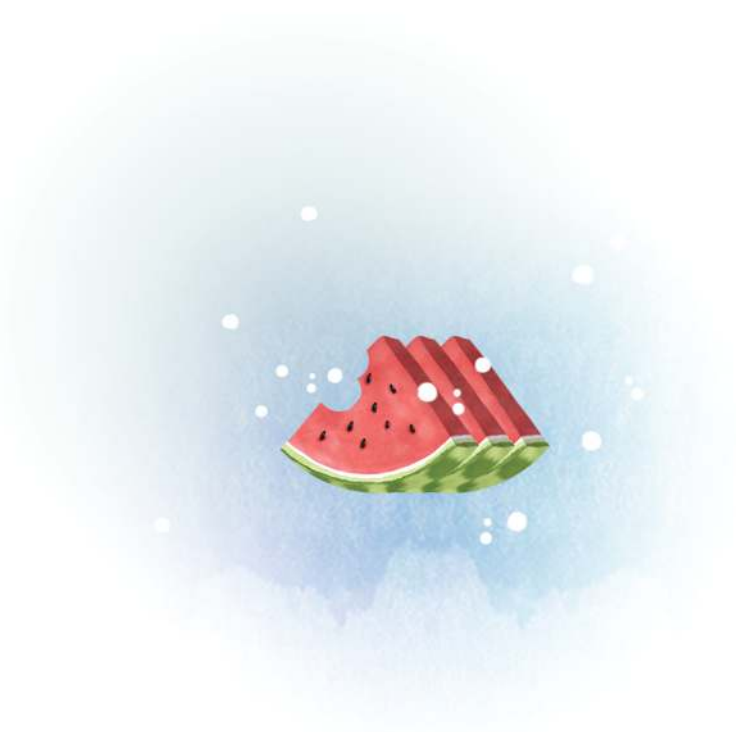
1. ASOS(8소)

대전(133), 세종(239), 서산(129), 홍성(177), 천안(232), 보령(235), 부여(236), 금산(238)

2. AWS(40소)

정림(378), 오월도(642), 세천(643), 장동(648), 세종고운(494), 세종금남(496), 세종연서(611)
세종전의(629), 북격렬비도(229), 송악(493), 호도(578), 대산(606), 근흥(607), 삼시도(609)
홍성죽도(610), 공주(612), 서천(614), 논산(615), 당진(616), 직산(617), 청양(618), 태안(627)
예산(628), 유구(632), 정안(633), 아산(634), 양화(635), 계룡(636), 신평(637), 연무(644)
서부(645), 춘장대(646), 대천항(657), 만리포(658), 계룡산(659), 안도(666), 웅도(667)
외연도(669), 정산(691), 원효봉(694)

※ 기상특보 발표구역은 해당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 단위로 발표함(기상법 예보업무규정 제8조 제2호)



대전지방기상청

(3414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383(구성동 22)

대표전화 +82-42-363-3599

Copyright © 2015 DROM. All rights reserved.